서원터서 나온 고려불교 의식구 보물된다

문화재청 7월 1일 지정예고
도봉서원 발굴조사 중 발견
고려시대 영국사 터로 확인
韓 밀교의식 연구 중요자료
'예념미타도량참법'도 보물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원 발굴 결과 원래 고려시대 절터임이 확인됐던 서울 영국사지의 출토 유물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려 시대 금속공예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을 비롯해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인 〈수운잡방〉, 불교 경전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보물로 예고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조선시대 유학자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지난 2012년 수습됐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조광조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하던 중 출토된 것으로 이를 통해 도봉서원이 고려 시대 영국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지정 예고 대상은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1점,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 그릇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등 총 10점이다.

원래 조선 시대 도봉서원 터라고 알려진 이곳은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초기 고승 혜거국사(慧炬國師) 홍소(弘炤, 899~974)의 비석 파편이 발견됐고, 비문의 내용 중 '도봉산 영국사'(道峯山 寧國寺)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 이 지역이 고려시대 사찰 '영국사'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출토된 의식공양구들은 고려 시대 영국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특히 의식구인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정교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해 현존하는 고려 시대 금강저와 금강령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금강령의 부속품인 물고기 모양의 탁설(鐸舌, 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방울 속에 둔 단단한 물건)은 국내 유일의 사례이기도 하며, 몸체 상단의 오대명왕과 하단의 범천 등 11존상의 배치도 희귀한 사례로 한국 밀교의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중 금동금강령 세부 모습. 오대명왕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고려 밀교의식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문화재청은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된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법과 더불어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공예사와 불교사상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부산 고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은 1474년(성종 5년)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이번 지정 예고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조선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다.

또한, 인수대비와 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 숙의, 상궁 등 여인들과 월산대군 · 제안대군 등 왕실 인사들, 신미(信眉) · 학열(學悅) · 학조(學祖) 등 당대 중요 고승들이 참여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돼 조선 초기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불경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불교 · 경영 · 미디어 융합학 배우고 싶다면…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7월 13일까지 석 · 박사 과정
주 · 야간 강좌로 편의성 높여
조계종 스님, 65% 학비 감면

불교학과 경영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융합 전공하는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신설, 첫 특별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학과장 김종욱)는 "7월 1일부터 13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전형은 학과장의 인터뷰와 추천서로 입학하는 과정이다.

올해 처음 신설된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불교와 사회의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위 과정이다. 교과들도 불교교단에 필요한 사업 능력 제고와 일반사회가 요청하는 인간 중심의 기업경영철학을 아우를 수 있도록 특화됐다.

공통 토대 교과를 바탕으로 불교학 전문 교과, 경영학 전문 교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문 교과로 학제적 시스템을 구축했고, 불교학의 인간불교 사상, 경영학의 조직 · 재무 · 인사관리 능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화쟁적 소통이 융화된 교과목을 배치했다.

교수진으로는 불교학 관련 신성현 · 허남결 · 이자랑 · 조기룡 교수가, 경영학 관련 김승용 · 정구혁 교수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관련 김관규 · 김용환 교수가 참여한다.

일반전형 면접은 기대 이상의 응시로 지난 6월 5일 마쳤으며, 현재는 특별전형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과 관계자는 "불교와 경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융합한 학과가 얼마나 호응을 얻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우였음이 일반전형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전문적 사찰경영이라는 학문적 수요와 실질적 학문에 대한 갈증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석사 · 박사 ·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편입학도 가능하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간 강좌와 함께 야간 강좌를 개설했으며, 조계종 스님(구족계 수지자)는 수업료 65%가 감면되는 건학이념 구현장학 혜택도 제공된다.

특별전형은 학과장 인터뷰 및 추천서를 발급받아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7월 23일이다. 인터넷 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로 할 수 있고, 학과장 추천서와 소정의 기본서류를 갖추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면 된다.

학과 신설을 추진한 불교학술원장 불영 자광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정법에 따라 경영하고 소통하며 열심히 재산을 모으되 절대로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셨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계 변화와 중생 제도에 환원할 것을 당부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대불교의 경영지도자, 현대경영의 불교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국 학과장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은 불교 사상과 현대 경영기법을 통섭해 불교교단과 사회조직에 적합한 경영 원리와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며 "수학한 졸업생들은 불교교단의 경영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교단의 조직, 신도,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02)6713-5139 신성민 기자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 만나볼까

문화재청, 제4회 백제문화유산주간

공주, 부여, 익산 등에 널리 분포된 백제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 지자체(공주, 부여, 익산),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고도문화재단 등 10개 기관과 협력해 오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왕도에서 제4회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개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역사유적지구(8개소)가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시작됐으며, 매년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열리고 있다.

올해 주요 행사는 △부소산성 · 왕궁리 유적 등 발굴현장 공개 · 설명회 △내 손으로 만드는 미륵사지 석탑 등 체험 · 학습행사 △백제왕궁 달빛공연 등 공연과 음악회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야외사진전시회 등 사진 · 그림 전시회 △유물 · 유적 연계프로그램(백제문화유산 녹턴) △비대면 온라인 강연 · 홍보행사 등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성철사상硏 '퇴옹학보' 18집 발간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사상연구원(원장 조병활)의 학술지 〈퇴옹학보〉 18집〈사진〉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지난 4월 24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퇴옹성철 스님의 불교관2'를 주제로 열린 학술연찬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수록됐다.

주요논문은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강경구, 동의대) △승조와 성철의 중도사상 비교(양순애, 경북대) △현수법장의 교판론과 퇴옹성철의 불교 비교연구(석길암, 동국대 경주) △퇴옹성철의 중도법문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 △선종의 수행과 신심의 상관성 고찰(김호귀, 동국대) 등이다.



부록은 제점숙 동서대 교수가 번역한 〈조선개교50년지〉가 실렸다. 〈조선개교50년지〉는 일본 정토진종 대곡파본원사의 한반도 포교 역사를 담아낸 것으로 구한말 종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신성민 기자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er ercohs 에르코스 포행화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